

2026년 8월 24일

Hana FX Daily Letter

잭슨홀 앞둔 달러, 금통위 바라보는 원화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위험회피 심리에도 매도 우위 수급 영향 속 상단 제한**
daily range 예상: 1,380~1,390원

■ 미국 국채금리 불안에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협상 결렬, 미-이란 갈등 등 대외 이슈로 시장 내 위험회피 심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다만, 이러한 요인들이 달러 신뢰도 저하 우려를 자극하면서, 달러인덱스는 98대에 머물고 있음. 또한, 수급 측면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으나,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는 여건이 이어지며 상승 압력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금일 달러/원 환율은 1,380원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

■ **전일 동향** : 21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10.0원 내린 1,386.0원 마감 장 초반, 미-이란 긴장 고조와 미 국채금리 불안에 따른 강달러로 1,390원대에서 출발. 그러나 역내외 달러 매도세와 한은 신임 부총재의 원화 강세 전망 발언에 힘입어 1,380원선까지 하락 후 1,386.5원에 주간 거래를 마침.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중동 사태를 주시하는 관망세가 이어지며 1,38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 후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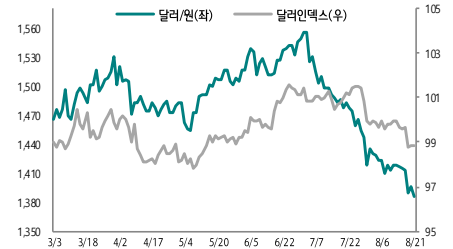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조치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달러 신뢰도 저하 문제가 나타나면서, 달러는 약세 흐름을 이어감
- (유로-달러) 유로존의 8월 제조업 PMI가 52.8로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 데 힘입어 유로화는 강세를 나타냄
- (달러-엔) 중동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도, 일본의 7월 근원 인플레이션 가속으로 BOJ 긴축 전망이 강화되자 강세를 보인 가운데 158엔대로 하락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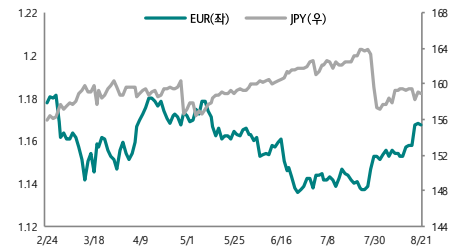
- 이번 주 외환시장은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및 잭슨홀 미팅, 8월 금통위와 수급 여건 등을 다각도로 주시할 전망. 대외적으로는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가늠할 핵심 이벤트가 대기 중임.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이 좀 더 우세하지만, 금주 발표될 미국 2분기 GDP 수정치와 7월 PCE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견조할 경우, 긴축 경계감이 재부각될 수 있음. 이와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향방의 가늠자 역할을 할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워시 연준 의장이 매파적 메시지를 낼지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반면 대내적으로는 환율 하방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판단됨. 한은의 매파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금통위의 연속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이와 함께 발표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할 경우, 한-미 금리차 축소 기대감이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전망. 이와 더불어 수급 측면에서 수출 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과 역외 매도세가 더해져 환율 하락을 유도하고 있음. 특히, 향후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강화될수록 하방 흐름은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종합적으로 금주 달러/원 환율은 대외 이벤트로 인한 상방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대내 요인들이 이를 상쇄하며 1,300원 후반대에서 주된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95.0	1,395.0	1,380.3	1,385.8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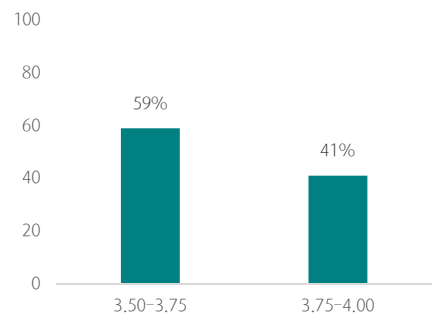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677	158.94	6.7210
전일대비	-0.0002	-0.12	-0.0042
재정환율	1,619.31	872.48	206.31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21:30	미국 7월 시카고연준 국가활동지수	-0.05	-0.02

9월 FOMC에 대한 시장 전망



자료: CME FedWatch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